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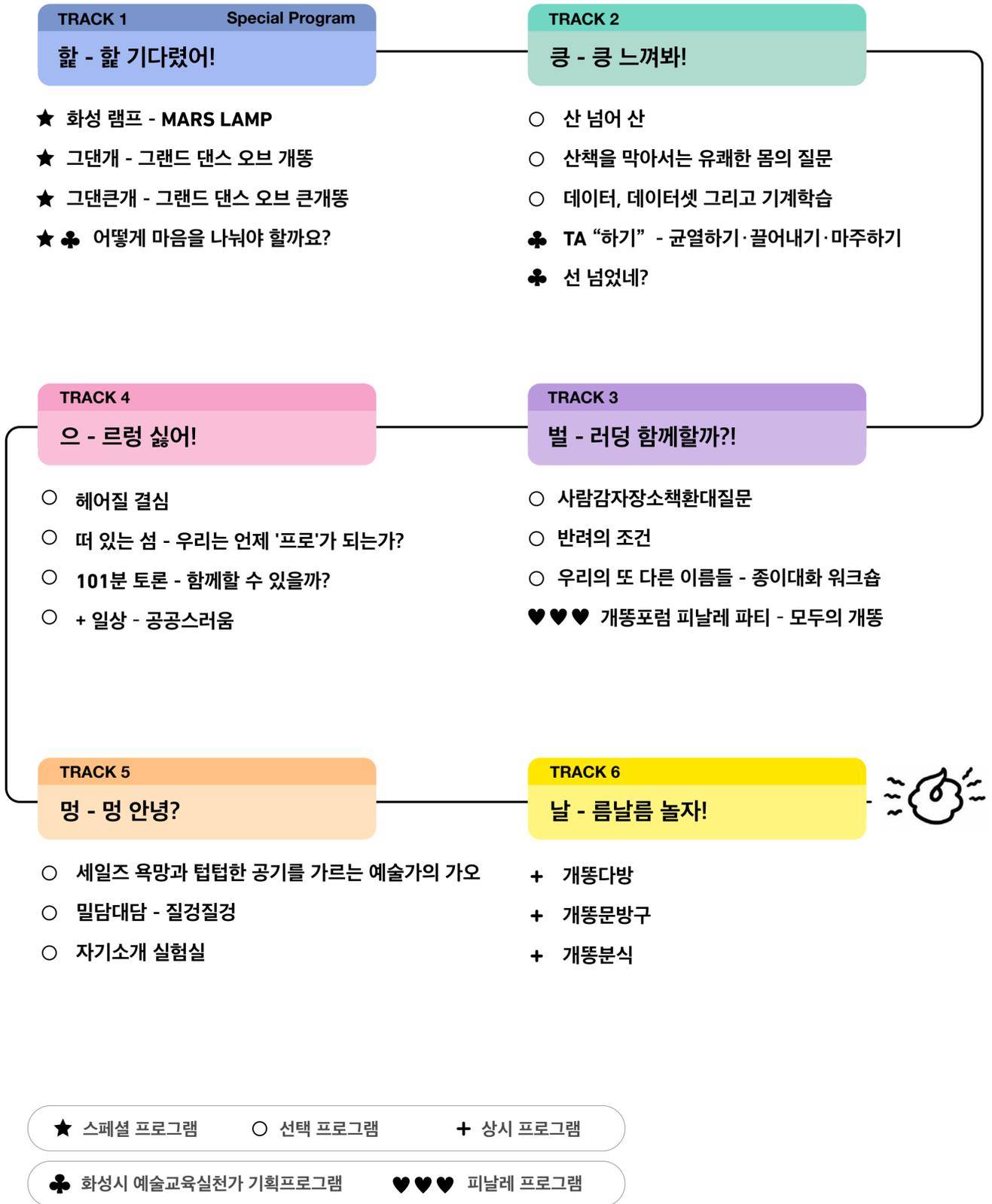
강아지 와  
산책 중에

개풍보트가  
없을 때



PROGRAM BOOK

<2022 경기문화재단 X 화성시문화재단 예술교육실천가포럼>은 6개 트랙, 총 2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마음이 동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담아 자신만의 산책 루트를 기획해 보아요.



## 11. 20

### DAY 1

장소	시간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M 2층	식당	+ 개똥다방 / 개똥문방구 / 개똥분식										
M 1층	커뮤니티룸						○ 산 넘어 산					
	연습실 1	★ 화성램프 - MARS LAMP			○ 101분 토론 - 함께할 수 있을까?			○ 자기소개실험실				
	예술실험실				○ 데이터, 데이터셋 그리고 기계학습			♣ 선 넘었네?				
1층	아르코대연습실	★ 그댄개			★ 그댄개		★ 그댄개					★ 그댄큰개
	공연장 로비				○ 우리의 또 다른 이름들 - 종이 대화 열린작업장							
산책로												

## 11. 21

### DAY 2

장소	시간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M 2층	식당	+ 개똥다방 / 개똥문방구 / 개똥분식										
M 1층	커뮤니티룸											
	연습실 1	★ 화성램프 - MARS LAMP								○ 떠 있는 섬 - 우리는 언제 '프로'가 되는가?		
	예술실험실				○ 반려의 조건		○ 세일즈 욕망과 텅텅한 공기를 가르는 예술가의 가오					
1층	아르코대연습실				★ 그댄개		★ 그댄개					★ 그댄큰개
	공연장 로비	○ [전시] 우리의 또 다른 이름들 - 종이 대화 열린작업장										
산책로		○ 산책을 막아서는 유쾌한 몸의 질문										

## 11. 22

### DAY 3

장소	시간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M 2층	식당	+ 개똥다방 / 개똥문방구 / 개똥분식										
M 1층	커뮤니티룸											
	연습실 1	★ 화성램프 - MARS LAMP			○ 헤어질 결심							
	예술실험실	♣ TA "하기" - 균열하기·끌어내기·마주하기			○ 사람감자장소책환대질문							
1층	아르코대연습실											
	공연장 로비	○ [전시] 우리의 또 다른 이름들 - 종이 대화 열린작업장										
						○ + 일상 - 공공스러움						
산책로		○ 산책을 막아서는 유쾌한 몸의 질문										

각 트랙 별 세션 정보 ● 10p ● 12p ● 14p ● 16p ● 18p ● 19p

프로그램 구성	2
프로그램 일정	3
인트로 1 / 2 / 3	6
<b>TRACK 1 / 활 - 활 기다렸어!</b>	<b>10</b>
[화성램프 - MARS LAMP] [그댄개 - 그랜드 댄스 오브 개똥] [그댄큰개 - 그랜드 댄스 오브 큰개똥]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할까요]	
<b>TRACK 2 / 쿵 - 쿵 느껴봐!</b>	<b>12</b>
[산 넘어 산] [산책을 막아서는 유쾌한 몸의 질문] [데이터, 데이터셋 그리고 기계학습] [TA “하기” : 균열하기 · 끌어내기 · 마주하기] [선 넘었네?]	
<b>TRACK 3 / 벌 - 러덩 함께할까?!</b>	<b>14</b>
[사람감자장소책환대질문] [반려의 조건] [우리의 또 다른 이름들 - 종이대화 워크숍] [개똥포럼 피날레 파티 - 모두의 개똥]	
<b>TRACK 4 / 으 - 르렁 싫어!</b>	<b>16</b>
[헤어질 결심] [떠 있는 섬 - 우리는 언제 '프로'가 되는가?] [101분 토론 - 함께할 수 있을까?] [+ 일상 - 공공스러움]	
<b>TRACK 5 / 멍 - 멍 안녕?</b>	<b>18</b>
[세일즈 욕망과 텅텅한 공기를 가르는 예술가의 가오] [밀담대담_질경질경] [자기소개 실험실]	
<b>TRACK 6 / 날 - 림날름 놀자</b>	<b>19</b>
[개똥다방] [개똥문방구] [개똥분식]	
<b>장소 / 오시는 길</b>	<b>20</b>
<b>신청 / 안내</b>	<b>21</b>

# 2022 GYEONGGI x HWASEONG



멍 - 멍  
안녕?

눈을 부드럽게 뜨고  
신뢰할만한 동료들 찾아 말걸기

TRACK 5



날 - 림날름  
놀자!

무의미와 황홀감의 두 기둥  
사이를 오가는 깔끼빠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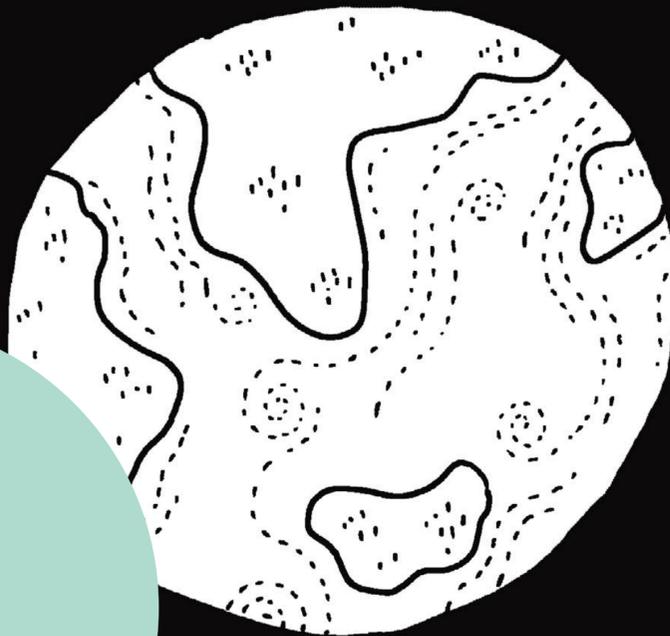
TRACK 6



별 - 러덩  
함께할까?!

나는 늙는다.  
고로 함께한다.

TRACK 3



콩 - 콩  
느껴봐!

아름답기보다는 아름다움이  
싹트는 자리에 머물기

TRACK 2



으 - 르렁  
싫어!

충분치 않음을 알리는  
창의적 불복종

TRACK 4



핥 - 핥  
기다렸어!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열렬한 애정의 환대

TRACK 1

## TEACHING ARTISTS FORUM

DYNAMIC PLATFORM OF TEACHING ARTISTS FOR DIALOGUES, ENGAGEMENT, AFFECT, AND ADVOC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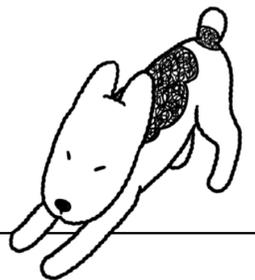
# 반려 감각 = 방랑하는 안녕 ∩ 떨리는 공존

영원한 안녕이나, 안정적이고 완벽한 공존이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반복됩니다. 동시에 왜 청년들이 전화로 음식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왜 ‘하찮다’라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편리함과 우리의 효율이 하늘, 땅, 바다를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미래를 위해 쏟아붓던 학습, 성장, 자기개발, 교류 같은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세상과 다른 이를 마주하는 감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래 공존은 모두가 명랑하게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덜 다가오고 누군가는 불편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모두의 눈에 안녕해 보이는 것 보다, 나대로 괜찮은 안녕이면 충분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전환의 시기에 예술교육실천가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예술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 생긴 틈을 메우고, 공고한 표면에 균열을 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일간 화성에서 진행될 <경기문화재단 x 화성시문화재단 예술교육실천가 포럼 :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에서는 방랑하는 안녕과 떨리는 공존을 향한 ‘반려 감각’을 주제로, 예술교육이 어떻게 예술과 일상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하며 질문하고 산책하며 사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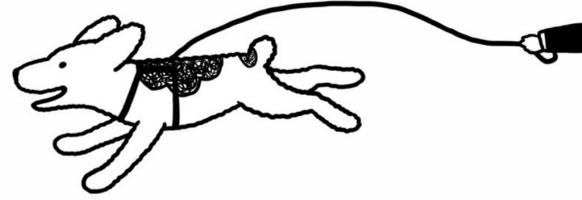
따뜻한 음식과 차, 그리고 뜨거운 이야기들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 FAQ : 올해는 왜 화성에서 하나요?

올해 개똥포럼은 화성시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시작한 일을 올해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하게 되고, 또 내년에는 다른 경기도의 기초재단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앞으로 더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해보고자 하는 실험의 시작이랄까요?

②①②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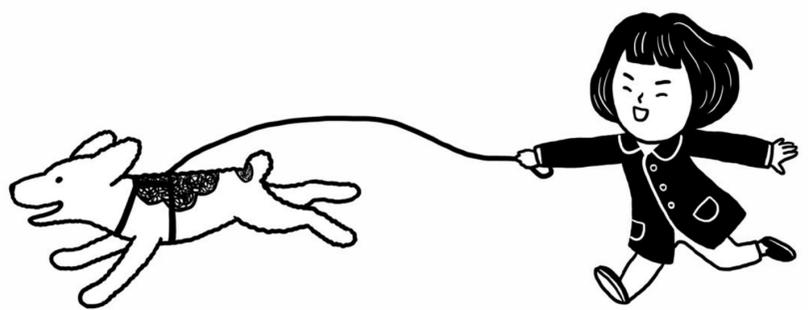


반려견 눈치는 **가슴 줄**을 드는 순간 폴짝 뛰어 현관 앞으로 달려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댁니다. 어서 가자는 신호입니다만, 실수였습니다! 무심하게 정리정돈 중이었는데, 하필 가슴 줄을 옮겨놓으려는 순간 눈치에게 딱 들켜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산책하러 나가야 합니다. 가슴 줄 루틴은 눈치와 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무척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됨에도 흥분지수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하고 진정제 말투를 던져놓아 보지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집안이 지루하다는 증표이고, 집 밖을 갈망한다기보다 야생의 부름을 받는 듯한 인상입니다. 저에게 산책은 가벼운 운동과 기분전환 정도에 그치지만, 눈치의 산책은 집 안의 온갖 금지로부터의 해방이며, 친구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고, 짧은 여행을 맛볼 수 있는 찬스이기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치와 산책 중에는 생리적 리얼리티, **오줌-스팟**을 만납니다. 오줌 흔적은 얼룩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변해가지만, 눈치의 레이더-코에는 어떤 상태든 아주 쉽게 걸려듭니다. 이곳은 강아지들이 영역을 표시하는 특정 장소라기보다 관계적인 곳, 생태적인 곳, 상호 의존적인 곳으로 파악됩니다. 마치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킁킁~ 짹! 짹! 하는 동일행동을 유발하며 ‘오줌-커뮤니티’에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오줌-입자들끼리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호작용하며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호응하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주기로 산책을 나오는지,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댓글-대댓글을 남기면서 슬렁슬렁 총총 거닐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기와 나를 말하기’가 생생한 ‘배설-아카이브’로 이뤄지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은 **으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내거나 거침없이 짖어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만남 혹은 뭔지 모를 적개심을 느껴 본능적으로 반응하나 봅니다. 눈치의 행동을 제어하려면 순발력을 발휘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야 할 만큼 눈치의 힘이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긴장감은 눈치가 여전히 길들지 않는 부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순종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자기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을 알아채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맹목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우는 소동이기도 합니다.

눈치의 산책(散策)은 ‘흩어져 피를 낸다’라는 어원에 다가가려는 듯이 알쏭달쏭한 길로 저를 이끌어갑니다. 직선적이지 않고 구불구불하며 낮고 수평적인 길, 개방적이고 순환적이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길, 혼자 나섰지만 동료와 함께 걷는 길, 공공적인 만남으로 서로를 돌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길, 주의 깊은 관찰과 반응 그리고 교감이 이뤄지는 길,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하는 길, 누리되 소유하지 않는 길, 저는 강아지들이 세운 질서 속에 눈치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기록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예술교육을 예술교육실천가답게 지속할 수 있는 법이 어딘가 새겨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속칭 <개똥 포럼 2022> 산책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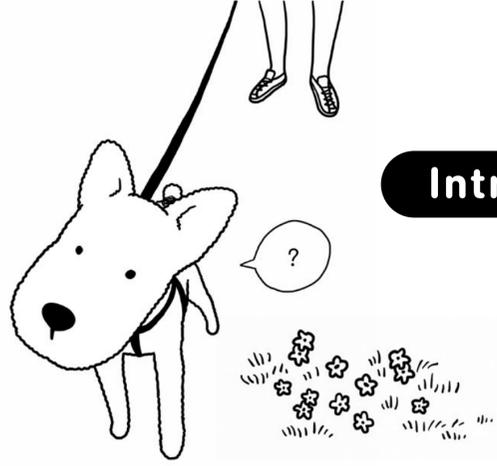
---

**FAQ : 지난 개똥 포럼이 궁금하시다면?**

2021년 개똥포럼의 아카이빙 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2021\\_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

#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에 관한 생각생각



'강아지와'는 예술교육 반려자를 뜻하는 말로 언어체계가 각기 다른 개별성들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단순하게는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지만, 각자의 관점과 감각 그리고 취향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과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강아지처럼 코와 귀로 보는 시선이나 땅굴을 파는 독특한 언어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소통의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둬야만 조금이나마 타자의 의중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책 중에'는 미지의 시공간을 동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서로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며 리듬이 어긋나지 않는 싱크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는 상대를 배려한 씬, 입장을 고려한 양보, 힘을 합치는 연대의식 등이 연동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길 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느슨하지만 연결된 개줄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의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 탐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끈을 풀어버리면, 순간 모든 문제들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똥봉투가 없을 때'는 계획에 없던 상황이나 우연한 사건에 휘말린 물리적 신체성과 심리적 동요 그리고 멘탈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형 문구입니다. 개똥이라는 물질은 생리적 아웃풋의 한 형태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팬데믹은 물론 그 산물인 비대면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 같은 낯선 이물질의 침습을 은유합니다. 이것들은 외계생물체처럼 신화적으로 나타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적 상황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바뀐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가능성과 불가능성들이 어찌면 개똥같은 말은 아닌지 진지하고 유쾌하게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 + 덧 [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

문명에서 야생의 세계를 맛보는 행위이자 늑대개의 DNA가 기억하는 세계를 환기하며 본능을 잃지 않으면서 주체성 회복을 위한 짧은 여행과 같습니다. 산책의 걸음은 경쾌하며, 마주치는 물질세계를 쿵쿵거리는 코와 날름거리는 혀바닥으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 맞닥뜨린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얇이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챈 듯이 말입니다. 또한, 강아지는 새로운 개체와의 만남에 선입견이 없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가가 서로의 엉덩이와 생식기까지도 거리낌 없이 말아보는 무례함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편견 없이 다가가고 예의를 갖추되 호기심을 잃지 않는 습성이야말로 우리 예술교육실천가들이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핥 - 핥 기다렸어!

Special Program

Track 1

##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열렬한 애정의 환대

핥 - 핥 기다렸어! 트랙은 단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별하다는 뜻이겠지요?

하나, 경기문화재단의 인기 프로그램 [말랑말랑하고 단단한 램프]가 오직 화성시의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분들만을 위한 3일간의 과정인 [화성 램프 - MARS LAMP]로 찾아옵니다.

둘, 포럼이 열릴 동탄복합문화센터 곳곳과 주변을 강아지처럼 함께 훑으며 걷고 뛰고 뒤섞여 춤추며 노는 ‘그랜드 댄스 오브 개똥’, 줄여서 [그댄개]와 DJ 바가지 바이펙스씨틴의 사운드에 맞춰 무용가들과 함께 하는 [그댄큰개]의 춤판이 열립니다. 물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셋, 10.29 참사에 대한 슬픔을 담은 작은 음악회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할까요?]로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 [Sessions]

<p><b>[화성 램프 - MARS LAMP]</b> ★</p> <p>예술교육의 심지가 닳아버려서 발 밑을 비추는 불빛이 희미해진 예술교육자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p> <hr/> <p>Mars Lamp는 한가한 잠을 깨우는 속삭임, 어둠을 두드리는 나약한 노크, 의지를 잇겠다는 발품팔이, 의심을 후려치는 믿음, 가슴을 채우는 정신머리, 의도치 않게 솟구친 욕함, 한숨이 모여든 물웅덩이, 깜박거리다가 부르짖는 굉음, 속을 끓여대는 프리포즈, 게으름을 질책하는 땀투성이들을 수행합니다.</p> <p>&lt;어떤 램프가 켜질까-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램프(20일) : 순간을 낚아채는 순간적 기술 (힌트: 유정란)</li> <li>○ 두 번째 램프(21일) : 사건을 추적하는 기록 (힌트: 한통속 이쑤시개)</li> <li>○ 세 번째 램프(22일) : 부조리한 글짓기 (힌트: 천덕꾸러기 사물)</li> </ul>	<p><b>11/20 ~ 11/22</b> <b>10:00 ~ 12:00</b></p> <p><b>M1층 연습실 1</b></p> <hr/> <p>• 기획/진행 : 임체스</p> <hr/> <p>◎ 신청 가능 인원 : 20명 (3일간 참여) *마감시 화성시에 살고 있거나 활동중인 예술교육실천가들을 우선적으로 모시겠습니다.</p>
--	--

## [그댄개]

그랜드 댄스 오브 개똥



11/20, 11/21

출발장소:  
1층 아르고 대연습실

무용TA와 함께 하는 모두를 위한 반려+산책+댄스. 행사가 열리는 공간의 곳곳을 강아지처럼 함께 훑으며, 걷고 뛰고 뒤섞여 놉니다. “능동과 보살핌을 통한 반려”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해 보는 시간. 댄스홀에서 거리와 산책로까지 이어진 춤은 DJ의 사운드와 함께 즉흥댄스로 마무리됩니다.

- 11/20
  - 1회차 10:30~12:00
  - 2회차 13:30~14:30
  - 3회차 15:30~17:00
- 11/21
  - 1회차 13:30~15:00
  - 2회차 15:30~17:00

춤이 급하신 분, 마음만 댄서,  
지형지물이 궁금하신 분,  
혼자 다니면 길 잃는 분 대환영  
-  
11/20 2회차 프로그램  
: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단축형  
코스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창작 및 출연 : 이범건  
김래혁, 정재필(프로젝트 곳곳)  
유지영, 이종현(종달정), 오현택
- 캐릭터 안무 : 배효섭
- 사운드 : Bagagee Viphex13
- 진 행 : 이나리
- 가이드 : 박윤슬
- 디렉터 : 제한정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회당)  
\*운동화 등 편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 [그댄큰개]

그랜드 댄스 오브 큰개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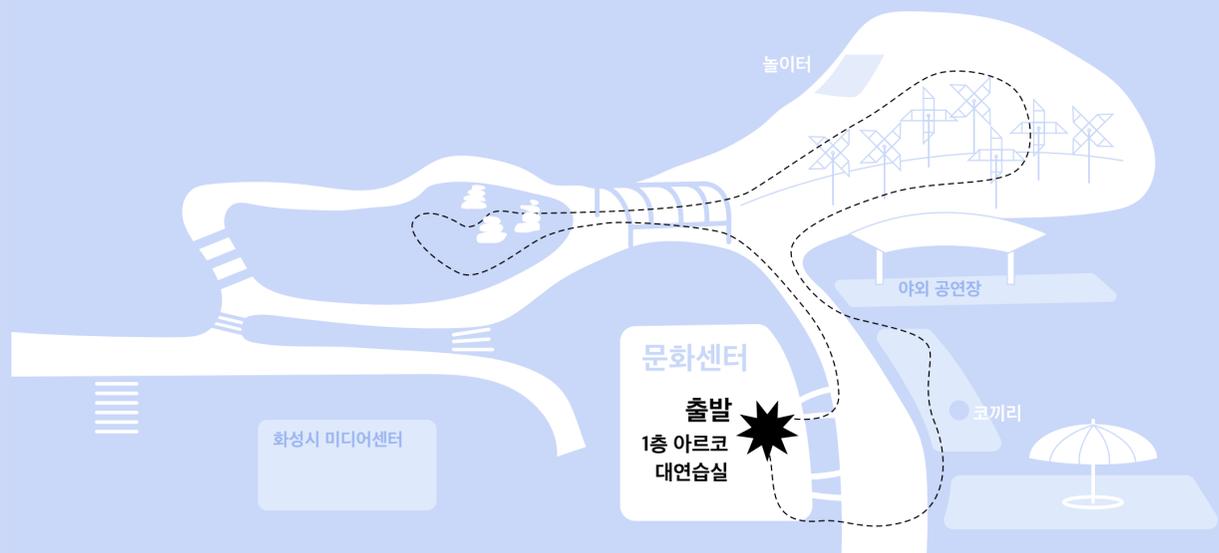
11/20, 11/21  
19:00 ~ 21:00

1층 아르고 대연습실

하루 포럼을 마무리 하는 개똥의 춤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댄개의 무용가들과 함께 DJ 바가지 바이펙스씨의 사운드와 함께하는 댄스파티입니다. 그댄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참여가능, 구경 가능합니다.

◎ 누구나 참여, 관람 가능

### Route



##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할까요?]

우리는 아팠습니다. 마음 한 켠에 자리 잡아버린 미안함을 끌어안기  
두렵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충분히 슬퍼하고도 싶었습니다.



11/20  
18:00 ~ 18:50

M2층 식당

한 음악가의 기도와, 한 음악가의 위로와, 한 음악가의 떠나보낸 친구에 대한 추억 그리고 한 음악가의 사랑의 노래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모습을 나누려합니다.

- 예술가의 표현 | 멘델스존 무언가(Op.109)
-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예술에 담는다 |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 TA, 여러 가면의 혼란 | 피아졸라 망각
- 더 깊고 넓은 애도와 공감에 부쳐 | 파트트 모차르트 아다지오
- 누군가에게는 선물로, 고백으로 | 슈만 헌정 (Op.25 '미르텐' 중 1번)
- '우리는 지금'

- 크리에이티브 뮤직 트리오  
피아노 : 윤민영  
첼 로 : 배우미  
플루트 : 김예은

• 춤 : 이나리, 박윤슬

♣ 화성시의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 콩 - 콩 느껴봐!

Track 2

### 아름답기보다는 아름다움이 싹트는 자리에 머물기

콩 - 콩 느껴봐! 트랙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들을 반려로 연결해 반려-감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집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참여가 어려웠던 예술교육실천가들을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Sessions]

##### [산 넘어 산]

아이의 속도로 움직이며 엄마의 속도로 관찰하는  
불확정성과 불일치의 워크숍

‘아이와 같이 산을 넘어가는 지난하고 고된 상황처럼, 육아라는 어려운 일상에서도 예술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유하고 실천할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의 질문에서 탄생한 지금 ‘4세 아빠이자 시민, 예술가, 기획자’의 워크숍입니다. 아이는 본능이라는 야생의 감각이 지시하고, 엄마는 문명이라는 이성의 잣대로 아이의 움직임을 번역합니다. 오독과 오해가 난무하는 그 사이트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경험과 불확정한 불편함이 어찌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사유의 토끼굴로 빠트리는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20  
15:30 ~ 17:30

M1층 커뮤니티룸

- 모더레이터 : 김월식
- 진행 : 설유정

- ◎ 신청 가능 인원 : 10명  
(미취학 아동과 그 가정)
- \* 준비물 : 등산복과 운동화,  
배낭, 물, 휴대폰, 이어폰,  
돋보기, 간식

##### [산책을 막아서는 유쾌한 몸의 질문]

길을 위한 산책길에서 맞닥뜨리는 즐거운 혹은 복잡한 질문

숲으로 향하는 산책길을 놀이도구들(아슬다리, 거미줄, 강통신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타고 갈까? 혹은 돌아 갈까? 넘어 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가로 막고 있는 문제들을 풀면 문제가 꼬일까? 즐거울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겨우 풀고, 풀면서 만나는 산책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탐험합니다.

놀이도구들은 포럼 운영 시간 동안 설치되어있을 예정입니다.  
세션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놀이도구들을 찾아 산책을 떠나볼 수 있습니다.

11/21, 11/22  
10:00 ~ 12:00

산책로

- 기획/진행 : 고무신

- ◎ 신청 가능 인원 : 30명  
(어린이 환영)

##### [데이터, 데이터셋 그리고 기계학습]

데이터, 데이터셋, 그리고 기계학습의 감각에 대해

지금의 기술사회에서 반려감각은 사람을 넘어 데이터, 데이터셋 그리고 기계학습까지 이야기합니다.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구성물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다루는 접근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또한 최근의 프롬프트 기반의 인공지능의 부상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11/20  
13:30 ~ 16:30

M1층 예술실험실

- 기획/진행 : 임재춘,  
엔메이크랩(최빛나, 송수연)

- ◎ 신청 가능 인원 : 15명

## [TA “하기” : 균열하기 · 끌어내기 · 마주하기]

TA\*의 길, 원래 이렇게 험난한 건가요?



\* TA(Teaching Artist) : 예술교육실천가

매끄럽고 원만하게 움직여온 일상의 진자에 떨림이, 간섭이, 멈춤이 생깁니다. 나의 모습에 여러 개의 가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쑥스러워 숨기고 싶고 남들은 몰랐으면 싶기도 하지만, 또 알아줬으면 좋겠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에 대해, 변신에 대해, 탈바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 화성시의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11/22  
10:00 ~ 12:00

M1층 예술실험실

- 모더레이터 : 서지혜, 제한정
- 발제 및 패널 : 임혜주, 이예정, 장혜숙, 윤민영, 김예은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 [선 넘었네?]

연극을 빌어 선 넘기에 대한 경험과 태도에 대해 동료들과 나누는 수다



‘넘어? 말어?’ 우리는 예술가 혹은 예술교육가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다가갑니다. 또 협업이라는 이름하에 종종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냅니다. 수시로 넘을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정작 그 정체에 대해서 내놓고 얘기해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어버리는 선, 이정도 까지는 가능한 선, 용기 내어 넘어야 하는 선... 그 경계짓는 “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연극을 빌어 나눠보는 워크숍입니다. 말, 눈짓, 몸짓, 그리고 음악이 함께 합니다. 부담 No, No!

♣ 화성시의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11/20  
16:30 ~ 18:00

M1층 예술실험실

- 모더레이터 : 서지혜
- 발제 및 패널 : 권소정, 김태임, 서혜윤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 벌 - 러덩 함께할까?!

Track 3

나는 늙는다. 고로 함께한다.

벌 - 러덩 함께할까?! 트랙은 공존에 대해,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즐겁고 슬기로운 반려 감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집니다.

## [Sessions]

### [사람감자장소책환대질문]

모두가 가장 자기답게, 안전하게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

예술(교육)실천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예술(교육)실천가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실천가 독서모임이 함께 읽은 책을 통해 모두가 가장 자기답게, 안전하게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읽자니가 만난 책 속 문장과 함께,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세상을 만나는 예술(교육)실천가로서, 그리고 한 알의 감자로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온갖 다름과 다양함을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 <혼자읽자니>는 지난 1월 시작된 함께 책을 고르고 읽고 이야기 나누는 예술(교육)실천가들의 자발적(음?) 독서(으음?) 모임입니다.



11/22  
13:30 ~ 15:30

M1층 예술실험실

• 모더레이터 :  
예술(교육)실천가 소설북클럽  
#<혼자읽자니>  
강진주, 고주영, 문해주(월광),  
손현정(손솜씨), 오지은,  
유은정, 이초영, 최서연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 [반려의 조건]

자신의 반려를 찾고 함께하는 태도를 사유하는 대화의 자리

절대적인 사랑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보살필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서로의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꽤나 다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반려감각을 갖춰야 할까요? 페미니스트이자 과학자인 도나 헤러웨이의 <반려종 선언>을 통해 예술교육실천가들이 자신의 반려를 찾고 함께하는 태도를 사유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11/21  
13:30 ~ 15:30

M1층 예술실험실

• 기획/진행 : 임성연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 [우리의 또 다른 이름들 - 종이대화 워크숍]

공동체와 공존에 대한 종이대화, 작업, 그리고 수다



11/20  
14:00 ~ 17:00

1층 공연장 로비 (반석아트홀)

오늘날 공동체와 공존의 개념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해 행위를 거쳐, 다시 질문으로 끝나는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예술가 혹은 예술교육가(TA)로 활동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우리는 누구인가요?

작가는 정해진 시간 동안 열린 작업공간(로비)에서 거대하고 온전한 종이를 참여자들과 함께 구기고, 굴리고, 던지고, 찢고, 다시 붙이면서 종이를 '우리의 종이'로 만들기 위해 애써봅니다. 애쓰는 사람도 있고, 애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쓰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쓰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종이가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우리'라는 동일성을 부여할까요? 나에게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의 '우리'인가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세요.

작가가 진행 중인 작업 시간 동안 각자 원하시는 시간만큼 방문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함께 만든 작업은 포럼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 전시됩니다. 흔적을 남겨주세요!

• 작가 : 김재현(Alex Kim)

◎ 신청 가능 인원 : 제한없음

## [개똥포럼 피날레 파티 - 모두의 개똥]

새로 얻은 영감과 아직 남은 아쉬움을 나누는 뽕쇼 파티



11/22  
16:00 ~ 18:00

M2층 식당 <개똥다방>

개똥포럼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반려감각을 얻게 될까요?

개똥포럼 기간 동안 함께 만든 감각들을 각자의 일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뉜 이야기들은 라이브드로잉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담긴 그 작품 앞에서 뽕쇼를 들고 '짠'을 하며 두 번째 개똥포럼을 마무리합니다.

• 진행 : 서지혜, 주성진  
• 이야기 : 모든 참가자  
• 라이브드로잉 : 손현정(손솜씨)

◎ 신청 가능 인원 : 50명



# 으 - 르렁 싫어!

Track 4

## 충분치 않음을 알리는 창의적 불복종

으 - 르렁 싫어! 트랙은 우리 마음속 숨겨왔던 불안들을 꺼내 놓고 불만을 털어놓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반려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집니다.

### [Sessions]

#### [헤어질 결심]

팀으로 사는 것의 곤란함에 대하여



예술보다 더 어려운 “나”와 “우리”. 반려했던 우리 사이에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만남/헤어짐을 결심하였다.”는 고백부터, 창의적인 문제해결로서의 싸움의 기술, 이별의 이유에 대한 복기도 시도해 봅니다. 극복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아니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곤란함의 이유도 늘어놓아 봅니다. 느슨한 연대, 기회/수익/시간/노동의 분배와 형평성, 공존을 위한 기술, 새로운 윤리에 관한 토론도 시도합니다.

11/22  
13:30 ~ 15:30

M1층 연습실 1

- 모더레이터 : 장석류
- 패널 : 구자민, 권소정, 이화영

◎ 신청 가능 인원 : 30명

#### [떠 있는 섬]

우리는 언제 ‘프로’가 되는가?



우리는 언제 프로가 되는 걸까요? 전국을 도는 교육, 충분한 현장경험, 칸이 넘치는 경력이나 원숙함 혹은 그저 나 자신인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일까요? 예술가/예술교육실천가가 “지원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키워져야 할 역량으로, 파견되어야 할 인력으로, 영원한 연습생으로 호명됩니다. 가능성이라는 이름 안에 갇힌 성장에 대한 압박과 내면화된 경쟁의식이 일상의 오디션이 되는 인정 투쟁, 그 사이에 일회용으로 쓰이는 구직자로서의 대상화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11/21  
17:00 ~ 19:00

M1층 연습실 1

- 모더레이터 : 제한정
- 패널 : 구은정, 이세승, 이려진, 윤석현

◎ 신청 가능 인원 : 30명

#### [101분 토론 - 함께할 수 있을까?]

100분으로는 모자란 현장 TA와 공공 행정가의 대환장 토론회



아이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돌려야 합니다. 공연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돌려야 합니다. 눈물은 썩 들어가고, 질문의 샘은 바싹 마릅니다. 재단도 이유가 있습니다. 정성적 성과를 증명해야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내년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예산을 받아들 수 있으니까요. 예술강사들도 해볼 수 있는 다른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과라도 준비해서 부드러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설문지를 스-욱 밀 수 있겠죠. 만족도 조사, 정산, 사업신청 양식 ... 머리를 맞대면 조금 더 재미있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11/20  
13:30 ~ 15:30

M1층 연습실 1

- 사회 : 주성진
- 패널 : 김진희, 최지민, 김수은, 양재혁

◎ 신청 가능 인원 : 30명

## [+ 일상 - 공공스러움]

예술교육 공공성 제거 특공대



11/22

14:00 ~ 16:00

1층 공연장로비 (반석아트홀)

예술교육 슈퍼히어로들은 오늘도 바쁩니다. 지구를 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문화 향수 기회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슈퍼히어로들은 퇴근길에 일회용 포장에 담긴 음식을 픽업하고,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는 지는 2년이 지났고, 자신이 소외계층이라 묶는 개개인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을 닮은/달은 방법으로 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슈퍼일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안에 뿌리박힌 공공성을 도려내 보는 시간입니다.

- 모더레이터 : 주성진
- 패널 : 박임자, 성상식, 이말용

◎ 신청 가능 인원 : 30명



# 멍 - 멍 안녕?

Track 5

눈을 부드럽게 뜨고 신뢰할만한

동료를 찾아 말걸기

멍 - 멍 안녕? 트랙은 우리 마음속 숨겨왔던 불안들을 꺼내 놓고 불만을 털어놓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반려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집니다.

## [Sessions]

### [세일즈 욕망과 텅텅한 공기를 가르는 예술가의 가오]

지역사회와 반려하는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



11/21  
15:30 ~ 17:30

M1층 예술실험실

현재 예술교육 현장과 제도의 안팎을 둘러보면 다양함이 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궁리하기보다,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세일즈의 욕망'과 대면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가, 예술교육 기획자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혐의가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온 흐릿함과 '텅텅한 공기'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다를 때, 예술가다움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 터를 잡고 '예술가의 가오'를 지역사회와 나뉘은 시간에 쌓인 감각을 이야기 나눠봅니다.

- 발제 : 박석윤
- 모데레이터 : 임재춘

◎ 신청 가능 인원 : 30명

### [밀담대담 - 질경질경]

떠나본 사람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기에 말할 수 있는 은밀하고 대담한 토크



11/20  
16:00 ~ 18:00

M2층 식당

(오~ 나의 파트너! 행정실무자들이 어느 순간 퇴사하고 없어졌다. 무엇이 그들을 떠나도록 내몰았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만나서 술 한잔해야 할 것 같다.) 퇴사를 경험한 혹은 곧 퇴사하게 될 또는 이직을 준비 중인 행정노동자들의 삶과 고뇌에 관한 솔직한 에피소드들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빈자리에는 장미 꽃다발이 환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독려하듯이 향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회 : 임체스
- 패널 : 김민, 이현화, 신보경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 [자기소개 실험실]

자기소개도 문화 · 예술적일 수 있을까?



11/20  
16:30 ~ 18:30

M1층 연습실 1

모든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에는 자기소개가 있나니. 진행하는 이에게도, 말해야 하는 이에게도 부담 한가득 어렵기만 한 자기소개. 언제까지 이름, 언제까지 나이, 언제까지 MBTI로만 나를 설명해야 할까요? 애초에 우리에게 정말 자기소개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 걸까요?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있는 '자기소개'를 새로운 관점에서 파헤치고 실험해보면서 새로운 동료를 만나는 자기소개 실험실!!

기획자가 전달한 주의사항 : 본 실험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잘 먹힐만한 자기소개를 개발하거나 공유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본 실험을 통해 우리는 자기소개의 본질을 찾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즐거운 자기소개 방식을 집요하게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실험의 목적(예상 성공률 63% 미만)이며, 도출된 결과물은 여러분의 사회적 성공에 아무런 밀거름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큼니다.

- 기획 : 이충현, 굴개
- 패널 : 김영용, 문숙희, 이맑은누리, 이지인

◎ 신청 가능 인원 : 10명  
(자기소개가 아직 어색한 예술가 및 예술교육실천가)



## 무의미와 황홀감의 두 기둥 사이를

### 오가는 낄끼빠빠

동탄복합문화공간 M2층 식당에 **개똥랜드**가 오픈합니다. 개똥랜드는 개똥다방, 개똥문방구, 개똥다방으로 구성된 포럼 참여자들을 위한 수다+놀이+끼니의 공간입니다. 에버랜드처럼 넓지도 않고 오션월드처럼 몸을 적실 순 없지만 대신 따뜻한 환대와 즐거운 수다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개똥다방**에서는 식경험디자이너 강은경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30가지 재료를 각자의 취향과 컨디션에 맞춰 블렌딩해 최서연 TA를 비롯 따뜻한 마음의 호스트들과 즐거운 수다를 나누며 드실 수 있고, 강아지레고를 통해 짝이 되신 혹은 포럼에서 만난 낯선 동료와 **<낯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티백이 연결된 채로 누군가와 차를 마신다면 어떤 경험이 될까요?(텀블러는 지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똥문방구**에 조금 이상한 놀이들이 준비됩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날달걀 세우기>**부터 4차산업 혁명시대의 최정밀 VR기술을 활용해 강아지가 되어 산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댄개\_뵤알>**, 하찮아서 부담 없는, 하찮지만 하게 되는, 하찮을수록 하고 싶은 스크래치 미학 **<하찮은 끄적끄적>**, 혼이 담긴 구라의 경지를 꿈꾸는 임체스의 체스의 상징과 마법으로 미적 감각과 삶의 행동패턴을 연결 짓는 **<체스점술>**, 화성에서 예술강사 코스프레를 하며 숨어있는 타로술사의 **<수업걱정이 사라지는 B급 타로>** 그리고 개똥포럼 참가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비가상화폐 개똥코인을 활용한 비밀스러운 사행성 게임까지... 이상한 기획자가 여럿 모이다 보니 당일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개똥분식**은 절대로 고급진 케이터링을 준비할 예산이 없어서 낮은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그나마 좋아할 분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쁘고 비싼 식은 도시락보다는, 현장에서 조리된 분식이 환대와 수다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진짜 진심입니다.

### TIP \*\*\*

**1.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에 방문하시면 일단 개똥랜드로 먼저 와주세요.**

포럼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한 안내도 개똥랜드에서 답해 드릴 예정이고, 무엇보다 개똥포럼만의 야심찬 기념품도 개똥랜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똥코인> 개똥랜드의 모든 프로그램과 식음료는 개똥코인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비가상화폐 개똥코인은 자본의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용하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잃어버리진 마세요. 마술 같은 개똥코인으로 개똥랜드의 프로그램 및 식음료를 구매하시면 개똥코인을 드립니다. 반려-감각적으로다가.

<2022 경기문화재단 X 화성시문화재단 예술교육실천가포럼>이 동탄복합문화센터 (아르코 대 연습실, 예술실험실, 식당 및 공연장 로비 등)에서 열립니다.



### 동탄복합문화센터

경기 화성시 노작로 134

◎ 주차 : 1시간 이내 무료 / 1~3시간 : 1,000원 (3시간 초과 10분기준 : 300원) / 전일주차 15,000원

### [버스 이용]

- 평택, 오산 방면 : 707 (솔빛마을이나 포스코정문앞 하차)
- 성남 : 1116, 116-1 (다운마을 하차)    ○ 용인 : 720-3 (주공휴먼시아후문 하차)
- 서울 : 1550-2, 7002, M4403 (다운마을 정류장 하차)    ○ 제부도 : 1000 (롯데워터밸리 하차)
- 관내 : 44, 701 (롯데워터밸리 하차) 709-1 (솔빛마을 하차) 72 (새강주공휴먼시아 하차) 701-1, 708, 75(다운마을 하차)
- 서동탄역 : 701-1 (롯데워터밸리 하차)    ○ 병점역 : 45, 1000 (다운마을 하차)
- 병점역사거리 : 45, 5-1, 708 (다운마을 하차) 44, 701 (롯데워터밸리 하차) 72 (새강주공휴먼시아 하차)

### [자가용 이용]

- **경부고속도로이용시 :**  
기흥/동탄 TG 진출 후 한림대학병원방면으로 진입 → 금곡초등학교까지 직진 → 금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 → 삼거리까지 직진 후 좌회전하여 <동탄복합문화센터>진입
-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이용시 :**  
영천교차로에서 (서울→오산)은 우회전, (오산→서울)은 좌회전 → 라마다 호텔 사거리에서 좌회전 → 좌회전후 3번째 삼거리에서 유턴 후 <동탄복합문화센터>진입

## [ 사전참여 신청 ]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참가신청하기](#)

※ 신청은 2022년 11월 8일(화)부터 11월 17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Homepage]

### [경기X화성 예술교육실천가포럼](#)

※ 홈페이지에는 발제자 정보 등 포럼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럼 현장에서 함께 예술교육에 대한 수다를 나누거나, 관심 있는 주제로 토론을 나눌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포럼관련 문의는 포럼 홈페이지의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NS]

### [개똥포럼 인스타그램](#)

※ 포럼과 관련한 소식과 차례로 공개될 사전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AEDDONGFORUM

# PROGRAM BOOK

< 2022 경기문화재단X화성시문화재단 예술교육실천가포럼 >  
강아지와 산책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

2022. 11. 20 - 11. 22 / 동탄복합문화센터



2022 <경기문화재단X화성시문화재단 예술교육실천가포럼>의 모든 홍보물은  
노견일기 올드독 작가님의 원화에 빌롱잉스의 디자인을 더해 제작하였습니다.  
푹코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